

제 26 장 사도행전 Tape #8115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6 장을 펴봅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로마 정부에 의해 보호받는 구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신의 보호를 위해 가이사랴에 그가 붙들려 있는데, 이곳은, 로마인들에 의해 더 강력한 방위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적게 있어서, 바울의 생명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만큼 여기서도 위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벨렉스 앞에 출두했으나, 바울을 대항하여 만들어졌던 고소들이 모순덩어리였기 때문에 그것들이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벨렉스는 옹호할 수 없었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거절한 그 뇌물을 자기에게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로마로 소환되었고, 베스도가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까지, 바울은 2 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지역의 새로운 로마 총독이 되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자신을 지도자들에게 보이자, 그들은 그에게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 대한 정보를 주었고, 바울을 종교회의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그에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가이사랴로 내려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대항하는 그 사건에 대해 그가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려와서 다시 같은 고소를 했으나, 이 또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먼저, 바울이 어떤 무서운 반역자일 것이라고 이 문제를 인식했으나, 나중에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에게, 이 고소들을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것이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재판정에서 불공정한 판정을 받았다고 느끼면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 특권을 실행했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을 했으므로, 당연히 그 때, 베스도는 로마인에 대한 보호라는 차원에서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내는 것을 반드시 의무로 이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베스도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는 들려 보내야 할 고소의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단순한 고소만으로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내면, 카이사르 앞에서 분명한 재판이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들이 없이 바울을 카이사르에게 보낸다는 것은 그에게 반역하는 표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재판관으로서, 그는 마땅히 바울을 풀어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이 로마인의 관습이었고, 또한 죄수로서 바울을 계속해 붙잡아 두는 것도 로마의 재판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매, 그것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난 것이 됩니다. 아내, 또는 여동생, 동생 버니게와 함께 한 아그립바 왕 2 세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로마 총독인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베스도가 벨렉스로부터 넘겨받은 그에게 있는 이 죄수에 대해, 그들이 고소 내용들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설명했으나, 그가,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은 어떤 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확인했고, 그들은 그 분이 죽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단지

그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내가 그것에 대한 고소장도 보내지 못한다면, 그를 보내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소, 우리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 확실한 고소 내용들을 꾸밀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청문회를 열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의했기 때문에, 아그립바는 이 사건을 듣기로 했고, 그것이 우리를 26 장으로 데려고 왔습니다.

1 절 “그 때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그들이 함께 거기 야외 집회장에, 또는 재판 장소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버니게와 함께 한 아그립바, 모두가 왕족의 외투를 입고, 로마의 재판을 상징하는 진홍색의 망토를 입은 베스도와 배심원들, 모두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자신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한 손을 들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되,”** 그가 아그립바 왕에게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2 절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 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해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3 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풍습과 문제를 잘 아시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 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그래서, 그의 아그립바 왕에 대한 정중한 연설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성경구절을 배우는 학생이었던 것처럼, 자, 아그립바 왕도 유대인의 성경구절을 배우는 학생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스도에게 그것을 소개하면, 그는 성경구절을 잘 모르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모릅니다. 베스도는 성경구절과 유대인의 풍습에 친숙하지 못하나, 아그립바는 유대인이었다고 알려졌는데, 아마 국적은 아니라도 그는 이두매인으로 헤롯

왕가의 자손이었으나, 종교적인 실천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종했고, 종교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실제로 그는 성경구절에 대한 매우 욕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시대 저자들인 랍비들은 그가 성경구절에 대한 많은 지식과 이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왜 바울이 아그립바에게 성경구절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적인 믿음을 나눌 기회로 여기고 흥분했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세상의 통치자들 앞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지금 여기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아그립바 왕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그가 알게 됐고, 믿게 된 대로 아그립바 왕의 눈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했고, 소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대언들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부활로 증명하셨다는 것이며, 바울이 아그립바의 기독교로 회심에 마음을 쏟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개인적인 간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증거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셨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나? 하는 것들은 사람에게 매우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삶에서 시작하며, 말하기를, **4 절 “내가 젊었을 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과 함께 지냈으며 그 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니이다.”** 그들이 모두 나를 안다는 말입니다. **5 절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거 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종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할 것이니이다.”** **6 절 “지금도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으로 인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초기 시절을 전언하고 있고, 후에 가장 엄한 종파인 바리새파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으로, 그것은 약속 아래 있는 메시아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7절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전체의 유대 백성이, 물론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소망 안에 믿음을 단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이것이 여기에 있는 전체 사태의 기초적인 논쟁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그들 모두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며, 물론 나도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지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8 절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나이까?” 그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어디에서나 복음이 가르쳐지는데, 성경구절에 있는 대로 그의 죽으심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미리 예정된 모사를 말하지만, 역시 그 분의 부활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문제 전체에 있어 중심이었으니, 바울이 그것 속으로 옳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야 한다는 것을 왜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해야만 합니까?

또한 어려움들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행위자의 수용력에 의해 반드시 헤아려져야만 합니다. 무리에타 핫 스프링스[Murrieta Hot Springs 역자주, 성경대학이 위치한 지역 이름]를 재건축하는데 어렵습니까? 음, 만약 우리에게 훈련된 프랑스식 개털을 깎는 자들이 많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굴렁쇠를 통과하며 뿔 수 있고, 공중에서 재주넘기를 할 수는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정말 그 같은 기술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총명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내려가세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그것은 시간 안에 마쳐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 일을 행하는 행위자의 수용력에 의해 반드시 헤아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행위자일 때,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리석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셔야만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가끔 이야기하기를, 만약 당신이 성경의 첫 구절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께서 크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 때 확실히 그 분이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분이 모든 삶의 형태를 창조하실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그 분이 창조하실 수 있고, 3 일 동안 그를 적응시키실 수도 있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분이 행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들의 모든 것을 그 분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제한된 관념일 뿐입니다. 왜 당신은, 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균형 잡힌 상태로 가져가면서, 그것을 바른 관망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그리고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종 일으키는 혹은, 만든 실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균형 잡힌 상태

로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종종 희미한가 하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셔야만 하는 것을 왜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개인적인 간증을 시작합니다. 9절 “**참으로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을 대적하여 마땅히 많은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고,**” 10절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행하여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바울이 스테반의 죽음에 투표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도 투표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종교회의의 일원이기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라고 느꼈겠지만, 교회에 대해 핍박한 죄가 있었습니다.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하며 또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타국의 도시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바울이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적개심을 품는 유대인에게 대해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가 그들 중에 있었고, 그도 그 증오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13절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밧 나와 함께 길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쓰러지니 네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으매 히브리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니,**” 여기는 다마스쿠스 도상인데,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렸던 곳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분은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하여, 다른 헬라어가 거기에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소리의 음향은 들었으나, 발음은 듣지 못했다고 보는데, 아마도 그들은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학자들만이 히브리어를 알았으니까요. 또한 주님께서 히브리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목소리의 음향을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당신과 나를 그렇게 동일시하시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분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면, 그 분은 자신이 비난받았다고 생각하십니다. 만약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 분은 자신에 대해 핍박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는 이유(행 6:40-41)인데, 제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기를 기뻐했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가시채찍을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고 그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젊은 소가 쟁기를 끌도록 하기 위해 그것에 멩에를 두려고 할 때, 이 젊은 소는 보통 멩에를 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만약 황소에게 단수형의 멩에로 멩에를 지우려면, 농부는 끝이 날카로운 가시채찍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황소의 옆구리 뒤에 그것을 바르게 붙들어 둡니다. 그래서 그 황소가 뒤로 차면, 그 소를 모는 가시채찍이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황소는 곧, 그 가시채찍을 대항하여 차는 것이 단지 자신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되겠지요. 그것은 그들이 차지 않거나, 멩에를 대항하여 반항하지 않도록 훈련되는 방법입니다. 그들 둘에게 멩에를 씌우면, 이 날카로운 끝을 가진 판으로 된 것을 뒤에 두게 될 것인데, 다시 차는 것은 단지 자신을 아프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가시채찍을 차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의 마음에는, 깊은 충동이 있었을 것인데, 그는

그것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의 전통적인 배경과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이 죽었던 길을 보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했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을 보면서,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의 젊은 마음에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일까?

가끔, 가시채찍을 가장 심하게 차고 있는 사람이 회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라는 것은 재미있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다루실 때, 그들이 진짜 그것에 대항하며 저항하고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은 종종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가는 보통, 우, 그들이 너무 멀어서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종 포기하기 직전의, 진짜, 마지막 갈등입니다. 그들은 진짜 부끄럽고, 진짜 비참해집니다. 가끔 아내가 찾아와서, 내 남편이 너무 초라해지고 있어요,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끔찍해요, 당신이 알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믿음을 대항하여 단지 고함지르고,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분이 점점 가까이 오고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시채찍을 대항하여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시채찍을 차기가, 바울아, 네게 고생이라!

15 절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매 그 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 절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장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행할 그의 사역을 위한 준비로, 예수님에 의한 그 자신의 개인적인 교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바울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노트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그가,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복음으로 구별되었다고(갈 1:15) 언급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 그의 태어남에서부터 그를 준비하여 왔습니다. 다소에서 자랐다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그의 배경이 있으나, 그의 부모의 욕망은, 그를 보내어 히브리 문화에 흠뻑 젖게 하려는 것이었기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기 위해 분명 젊은 청년의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문화의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값에 대한 지불 없이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히브리 성경구절로 잘 교육되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것들을 함께 모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행할 사역으로 하나님에 의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인식하기 훨씬 전에, 이미 그의 삶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고, 우리가 사역과 봉사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사역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 분이 우리가 성취하도록 마음에 가지신 그 역사를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계셨기에, 우리가 직면했던 그 각각의 환경과 상황에 어떻게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썼을 때(엡 2:10),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봉사와 사역을 이미 준비하셨거나 예정하셨습니다. 그 분이 당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종종 준비는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아마도 단지 독특한 한 사건일지도 모르지만,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한 것이 됩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위장 아래 만든 이 법령을 취소하기 위하여, 자기 남편인 왕에게 나가도록 모르드개의 부탁을 받았을 때(에 4:10)를 당신이 기억하지요. 모르드개가 말하기를, 네가 왕국에 들어간 것이 이와 같은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를 여왕으로 선택한 이유라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인데, 그것이 지금 이 지점에 온 모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과 며칠 안에, 에스더가 삶의 목적, 그녀의 사역을 이루었는지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내가 거의 50년 가까이 그것을 하고 있으나, 아직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불과 며칠 안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으로 당신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놀라운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음, 하나님, 언제 이것을 하시렵니까? 라며 이상히 여기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조차 이와 같은 때를 위해 하나님의 준비의 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네가 본 일들과 내가 네게 계시할 일들 모두를 위한, 사역자와 증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 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사도라는 단어가 보낸다는 것, 혹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음이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 그는 산헤드린 혹은 수제사장들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일로 수제사장들에 의해 보내졌으니, 그는 수제사장들의 사도였지요. 그러나 그가 다마스쿠스에 오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버렸기에,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보내졌고, 그리하여, 사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보냄을 받은 자가 됩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향한 그의 사역이 무엇보다도 먼저였습니다. **18 절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감기셨던 자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이 사탄에 의해 묶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 상태의 실체에 대해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의 삶들이 그들의 죄로 파괴되어 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빠르게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복음을 바라볼 때,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던 것 중에 가장 합리적인 제의라는 것을 당신이 압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르시되(사 1:18),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 장의 문맥에서 보면, 얼마나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성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신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리하여 사탄의 체계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에 대한 수용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랑했던 자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진리에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탄이 그들의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선입견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복음의 제시들을 실제로 고려할 수 있는 데로 그들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눈멀게 했다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며(딤후 2:24-26) 말하기를, 그들의 뜻을 대항하여 그들을 붙들고 있는

대적의 사로잡음으로부터 그들을 취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한 두 번째는 그들의 눈을 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

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사탄은 사로잡아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울아, 네가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고”**(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필요입니다. 죄의 용서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벌하고 싶지 않으시고, 누구나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죄들이 용서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을 통하여 구입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향한 바울의 메시지, 그것의 영향은 그들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 편의 다윗처럼 말하기를, 자기 죄를 용서받은 자는 얼마나 복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얼마나 축복인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 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 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요일 3: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롬 8:16-17).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급 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분의 것으로, 구별하십니다. 바울은(고전 6:19-20),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음이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는데, 강조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분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다르게 하시고, 구별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그 분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으로나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 분을 경배하도록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그 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은 당신의 경배를 원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분은 그것을 독점적으로 원하니, 당신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19 절 “그러므로 오 아그립바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환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함을 이교도에게 가져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20 절 “먼저 다마스쿠스와,”**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왔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시작했으나, 그들 모두는 깜짝 놀라며, 이 자는 교회를 핍박하러 내려온 자가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이나?)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가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 않았고, 그들은 그와 불편했는데, 그들은 그의 회심을 확실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때,” 그들은 회개를 증명해 보이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바뀌어야만 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변화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수없이 그들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마는,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자고 말했습니다. 회개의 증거를 좀 봅시다.

결혼에서 번번이, 사내가, 분노를 가득히 가진, 무시무시한 폭군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녀가 실컷 먹고, 나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까지 그는 그저 무시무시한 폭군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살지는 않으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가도록 주문하든지, 혹은 그녀가 나가든지입니다. 그러면, 그가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인데, 오, 당신이 내 아내에게 전화 좀 해서, 내가 변화했다고 그녀에게 전해 주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신이 알지만, 나를 위해 중재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변했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그녀에게 전화해서, 그가 변했다고 말합니다. 오 예, 내가 그것을 전에도 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어떤 증거입니다. 자, 증거들을 좀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내가 변했다, 내가 달라졌다고 말하더라도, 만약 당신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약 변화가 없다면, 회개의 진정성에 대해 물어야 할 진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교승배로부터 회개하도록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리고, 회개를 증명

하는 행위들을 가지시오.

21 절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고자 하였나이다.” 22 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이 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거 하는 것은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 밖에 없으니,” 내가 단지 그들의 성경구절로만 설교하고 있는데, 이는 모세와 대언자들의 나머지들이 다가올 것에 대해 말했던 것을 단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시편 22 편, 이사야 53 장), 그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23 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으로 일어나신 이가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 분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게 있으며, 다시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 당신이 기억할 것은, 베스도가 로마의 재판관이요, 지금 아그립바는 성경구절들에 대해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로마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이 모두 새롭게 아는 것입니다. 환상, 죽은 자부터의 부활 등, 이 모든 것들이 베스도에게는 새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로 막습니다.

24 절 “바울이 이같이 자기를 위하여 변론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 정신이 아니니 많은 확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니,” 그는 아마도 바울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손으로 쓴 사본들, 즉 성경구절들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죽은 자로부터 부활과 같은 단어들로 그의 마음이 팔락팔락 움직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 아니,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 너무 많이 배운 것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25 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맑은 정신으로 참된 말을 하나이다.**” 그 일들이 중간에 가로막히고 있음을 안 바울은 아마도 베스도에게 향한 것을 단아버리고, 아그립바에게 잣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압력을 넣으려고 합니다.

아그립바에게 돌아서서, 바울은 말하기를, **26 절**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시므로 나도 왕 앞에서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에 하나라도 왕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나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었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기록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립바에 대하여, 나는 당신이 성경구절들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음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때 아그립바에게 돌아서면서, 그의 간증은 공격적이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27 절** “**아그립바 왕이여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것은 추정상의 결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8 절** “**이에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성경구절들이 존재해 있는 것보다 지금 그것에 대한 더 많은 번역들이 나와있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헬라어는 같은 것이지만, 많은 방법으로 번역되었다는 말입니다. 약간의 설득으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번역입니다. 혹은 이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할지 모르는데, 거의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설득하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바른 번역을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그립바가 구원의 가장자리에 놓였다는 것만은 가능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통하여 그에게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말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왕 앞에 나가거든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각에 성령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말해야만 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능력과 확신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아그립바의 마음이 만져졌기에, 그가 가까이 왔다고 믿습니다. 거의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설득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만,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에 대한 가책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가까이 끌렸을 때, 사탄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채 뽑아갑니다. 이것은 가까이 있기는 하나, 충분히 가까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설득할 뻔했으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 아주 가까이 왔지만, 안으로 들어가려는 발걸음 떼기를 거절한다면, 얼마나 비극일까요! 받아들이기 위한 마지막 걸음인데 말이죠.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실제로 계산하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입니다. 내가 바꾸어야만 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 그들은 딱 한 걸음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바로 그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헌신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걸음인데, 거의 내가 설득되었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매우 가까이, 그러나 아직도 멀다.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쪽으로 걸어가며, 개인적인 비극과 재앙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까이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거의 설득하고 있습니다.

29 절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 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거기에 있었던 모든 관리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 당신이 다음 단계를 취했을 것을 말하는데, 거의가 아니라, 이 왕궁에 있는 모두 함께, 당신들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었으며, 아마도 사슬을 들어올렸을 것인데, 이것은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당신들 모두 함께 꼭 나와 같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묶임, 이것만은 당신들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30 절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들과 함께 앉은 자들이 일어나,” 거의 거기에서, 아그립바 왕은 일어나서, 교시의 결말을 지시했습니다. **31 절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일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32 절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다른 말로 하면, 베스도,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가 없소, 이 사람아. 당신은 그를 보내야만 했소, 그리고 나도 그가 가진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가 죽음이나 사슬에 매일만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만약 그가 청원하지만 안했어도, 그는 즉각 석방되어야 했소.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놓쳤다고 보는 것입니까? 음, 기억하겠지만, 바울은, 그가 체포되기 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한 적이 있었는데, 출발하기 전,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보아야만 하리라, 그리고 나면, 내가 로마도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던 것이지요. 바울이, 그의 동포인, 유대인들과 복음을 나누려고 했던 불운한 시도 후, 예루살렘의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 밤에 낙심하여 있던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 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거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로마로 갈 것이고, 자기를 위해 증거 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에게 증거 할 것이라는 것을 약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느 날 네로 앞에 설 것이고, 그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네로에게 할 기회를 가질 것이며, 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해 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인데, 그 길로 갈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길로 갈지 모르나, 하나님의 경제 논리로 생각해 보면, 로마 정부가 그것을 변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정부의 특별 취급을 받으며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로마로 그를 보냈던 곳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말타[말레타]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돌리도록 폭풍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푸테오리 항구와 로마로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나눌 기회를 주셨던 말레타의 길옆으로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손에 가지시는 희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비극 등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시기에 맞는 시간에, 그 분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를 나눌 기회를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의 공부에서, 우리는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과 함께 할 것이고, 그를 인도하고, 지시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계속하여 얹혀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부를 위해 27 장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여 당신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성경구절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그 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의 왕국에서 후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요. 그리고 이 축복들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